

베를린 해방기념일 기념: 붉은 기!

소련이여 영원하라



유일하고 강력한 소비에트 연방이여



베를린이 항복했다.



오늘은 소련이 베를린을 해방시킨 날이다!

오늘은 그짐에 조선의 문예시인인 오장환 시인의 붉은 기라는 시를 올리고자한다.

붉은 기

환하게 트인 하늘에

붉게 타오르는 진홍의 깃발!

내

뒤끓는 가슴이

한 아픔의 희망 넘치는 꿈으로

국경에 가차웠을 때

두만강 건너

누구보다 먼저 손 저어준 것은

그대 붉은기!

자유를 위한 오래인 싸움에서

피로 물든 이 깃발

원수와의 곤란한 싸움에서

영광과 승리로 나부끼는

이 깃발!

나는 본다 너에게서

사회주의 조국의 긴 역사와

이 나라의

소비에트 세상의 씩씩한 얼굴을

그것은 그대였다

내

뜨거운 흥분이

기창(機窓)을 부비며 이 나라 수도(首都)

힘찬 평화의 서울인

모스크바를 살필 제

나는 여기서도

제일 먼저 보았다

양털 같은 구름 사이로

온 천하에 손 짓는

그대

붉은 깃발을

기!

기!

붉은 기!

세계가 사랑하여 부르는

인민의 기

붉은 깃발은

기!

기!

붉은 기!